

# '디그 53개' 신들린 수비... '오지다' 페퍼스 오지영

(특점을 막는 수비)

기업은행전 졌지만 활약 돋보여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기업' 흥국 김해란과 역대 공동 2위 4세트로는 국내 최다 기록 수비진 짜임새 더해져 '든든'

광주 시페퍼스 오지영(35)이 국가대표 리베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지영은 지난 1일 밤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전에서 53디그(상대팀의 득점을 막는 수비) 대기록을 수립했다. 1경기 53디그는 여자배구 역대 공동 2위 기록이다. 4세트까지 57차례 디그를 시도해 53개를 성공했다. 4세트 경기로 한정하면 최다 디그 기록이다. 김해란(39·흥국생명)이 54디그, 53디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폴세트 경기에서 나왔다.

오지영은 1세트에서만 12개 디그를 기록했다. 기업은행 산타나, 표승주, 김수지 등이 공격 점수로 뽑아낸 11점이 오지영의 활약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신출귀몰이랄 정도로 맹활약했다. 페퍼스 코트로 쏟아지는 57개 공격 가운데 53개를 견어올렸다.

오지영의 가세로 험거웠던 수비진에도 짜임새가 더해지고 있다.

팀 성적은 2승23패로 최하위지만 세트당 디그는 20.478개로 7개팀 가운데 4위에 올라 있다.

수비 부문(디그, 세트 성공 등) 랭킹도 세트당 27.804개로 5위다.

그만큼 페퍼스가 무기력하게 점수를 내주는 사례도 크게 줄고 있다.

올해 프로 16년차인 오지영의 활약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는 수비 부문에서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리베로였다. 2020-2021시즌 V리그에선 리시브 부문 2위(49.81%)와 디그 3위(세트당 평균 5.564개)에 오르기도 했다.

오지영의 가치는 국제무대에서도 검증됐다. 도

쿄올림픽 여자배구에 출전한 12개국 선수들 중 디그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상대의 164차례 공격 중 93개를 정확하게 받아냈고, 11차례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었다. 세트당 평균 3.10개 디그를 성공시켰다.

국가대표 리베로로 활약했지만 오지영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원업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올시즌 후반 한다혜에게 밀려 사실상 주전 리베로로 코트를 밟을 기회가 적었다.

GS칼텍스 오지영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곳은 수비 보강이 절실했던 페퍼스였다.

페퍼스는 개막 후 16연패에 빠지고 김형실 감독마저 사퇴하자 지난달 26일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에서 뛰던 오지영을 영입했다.

오지영을 영입한 페퍼스는 수비진이 한층 탄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비라인을 조율하고 어린 페퍼스 선수들을 다독이며 술선수범하는 오지영 효과를 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시페퍼스 오지영(가운데)이 지난 1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전에서 이한비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KOVO 제공>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전 데이비스컵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권순우가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순우 vs 고팡... 데이비스컵 16강 놓고 빅매치

한국-벨기에 4~5일 한판승부 권순우 흐름 좋아 기대감 커

이번 주말 권순우(61위·당진시청)와 다비드 고팡(41위·벨기에)이 벌일 맞대결에 국내 테니스 팬들의 기대감이 커진다.

한국과 벨기에에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 경기장에서 2023 데이비스컵 최종본선 진출전(4단 1복식)에서 맞대결한다.

이기는 나라는 세계 16강인 최종 본선, 파이널 스로 향하지만 패하면 월드컵 예선 1로 밀려나게 돼 양보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권순우와 고팡은 두 나라 예이스로 책임감이 막중하다.

먼저 3승을 올려야 승리하는 만큼 예이스가 혼자 2승을 따내 주면 그만큼 파이널스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인터뷰하는 고팡. /연합뉴스

현재 랭킹이나 경력 면에서는 고팡이 앞서지만, 최근 흐름은 권순우가 좋다.

고팡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에서 6차례 우승했고, 개인 최고 랭킹도 2017년 7위에 오른 강호다.

메이저 대회에서도 지난해 워싱턴 등 네 차례나 단식 8강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맞서는 권순우는 ATP 투어 단식 우승 2회, 개인 최고 랭킹 52위로 고팡에 비해 조금 열세다.

메이저 최고 성적도 2021년 프랑스오픈 3회전(32강)이다.

나이는 1990년생 고팡이 7살 많고, 키(180cm)

와 오른손잡이인 점은 같다.

그러나 권순우는 1월 호주에서 열린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하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고팡은 호주오픈을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기권했다.

2일 대회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둘은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다.

권순우는 "고팡이 공격적인 스타일에 포핸드, 백핸드, 네트플레이 모두 좋은 선수"라며 "저도 공격적으로 하면 상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팡 역시 "권순우와 경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연습은 같이 해봤다"며 "최근 흐름이 좋고, 하드코트에도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순우와 고팡의 맞대결은 5일에 열린다. 한국과 벨기에의 데이비스컵 경기는 4일과 5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쿠방플레이가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 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NFL 전설' 브래디 복귀 1년만에 다시 은퇴 선언

북미프로풋볼(NFL)에서 정점에 오른 쿼터백 톰 브래디(46·사진)와 패션계의 '전설' 지젤 번천(43) 커플의 이혼 소식이 지난해 미국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이었다.

알아주는 '잉크 커플'이었던 그들이 갈라선 계기는 브래디의 현역 복귀였다.

NFL 탬파베이 버커니어스 소속 쿼터백인 브래디는 2021-2022시즌이 끝난 뒤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선수로 더는 이를 게 없고, 가족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내가 있을 곳은 관중석이 아니다"라며 불과 40여 일 만에 은퇴를 번복했다.

탬파베이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동시에 소유한 구단주 조엘 글레이저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긴 척 필드에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한 시즌을 더 뛴 브래디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은퇴 의사를 밝혔다.

브래디는 2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장

항하게 말하지 않았다. 작년 은퇴 발표를 했을 때 장황한 표현은 모두 사용했다. 지금까지 응원해준 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고 직접 말한 영상을 올렸다.

수많은 팬은 브래디와 작별을 안타까워한다.

NFL 최고의 쿼터백 자리를 이어받을 후계자로 거론되는 패트릭 마흐스(캔자스시티 치프스)는 'Greatest Of All Time(GOAT·역사상 최고)'을 뜻하는 염소(goat) 아이콘을 도배했다.

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는 골잡이 해리 케인도 염소 아이콘과 함께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은퇴하는 걸 축하한다. 골프장에서 만나자"고 축하했다.

브래디는 혼자서 7번이나 슈퍼볼 우승을 차지해 '팀보다 위대한 선수'라는 평을 받는다.

브래디는 뉴잉글랜드의 6차례 우승을 모두 함께 했고, 탬파베이로 팀을 옮긴 뒤 2021년에 한 번 더 슈퍼볼을 쟁패했다.

이 밖에도 브래디는 슈퍼볼 MVP(5회), 출전(10회), 정규시즌 통산 패시야드(8만9214야드), 터치다운 패스(649회) 등 수많은 'NFL 최다 기록'을 남겼다.

이번 시즌에도 브래디는 소속팀 탬파베이를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견인했지만, 팀은 플레이오프 첫 판인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 김가영·임정숙 LPBA 32강행... 디펜딩 챔프 김예은 탈락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과 임정숙(크라운해태), 스롱 피아비(캡보디아·블루원리조트) 등 여자 프로당구(LPBA) 강호들이 시즌 마지막 투어를 손조롭게 시작했다.

김가영은 1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크라운해태 PBA-LPBA 챔피언십 여자부 64강 서바이벌에서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다.

박은경, 서한솔, 김상아와 1조에 편성된 김가영은 최종 92점으로 조 2위 김상아(44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수로 손쉽게 서바이벌을 통과했다.

LPBA만의 독특한 경기 방식인 서바이벌은 모든 선수가 50점에서 출발해 전·후반 40분씩 경기를 펼치고, 조 2위까지 상위 라운드 진출권을 얻는다.

'캡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도 12조 1위로 2위를 차지한 강지은(SK렌터카)과 나란히 32강에 올랐다.

직전 대회인 7차 투어 웰빙 챔피언십 우승자인 임정숙도 2조 2위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이밖에 히다 오리에(일본)를 비롯해 이미래와 이우경, 김세연, 김보미, 김진아, 용현지, 김민영 등이 32강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김예은(웰컴저축은행)은 6배를 마셨다.

5조에 편성된 김예은은 원은정(83점), 최연주(47점), 김명희(43점)에게 밀려 최종 27점으로 조 최하위에 그쳤다. LPBA 32강전은 3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유령
2관	바빌론, 교섭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상견니, 몬스터 하우스: 인버저를 피닉스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영웅, 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씨네커를, 바빌론,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를, 영웅, 메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신년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